

1. 홈커밍데이

- 1) 일시 : 12월 6일 오후 3~6시 (3-5시 : 자유로운 교제 및 나눔, 사역 현황판과 함께 / 5-6시 예배)
- 2) 장소 : 아람관 교직원 식당

※ 필요사항 ※

- 1) 대관비 : 10만원 (2시부터 6시 30분 사용) 담당자 : 아람관 식당 지점장 (섭외 완료)
- 2) 데코
 - ① 사진 인화, 원래 앨범에 있던 사진 줄에 걸고, 집게로 꽂는 데코
 - ② 이름표 만들기 : 하트 스티커
 - ③ 캠퍼스/기능순 사역판 만들기 -> 각 대표단 / 명원 순장 준비 및 책임
(무슨 섹션을 만들 것인가) -11월 22일까지 준비
- 3) 다과 준비 : 차/물/주스/쿠키 등 (12월 5일 금요일 - 효진순장 준비)
- 4) 차일드 케어 : 현실적으로 놀이방 같은 것을 만들 수는 없지만 아이들 데리고 놀아주거나 관찰할 2명의 지체가 필요
- 5) 음향장비 셋팅 : 마하나임<담당자> 세우기
- 6) 환영 및 안내 : 처음 들어올 때 방명록 적도록 한다.(준비) - 이름/캠퍼스/학번/전화번호
 - 주차권 구하기(노운영 순장) - 일반 주차시 주차비가 너무 비싸다.
 - 환영 피켓 팀 - 3팀 : 가천대 입구 삼거리, 터널 끝 정의관 앞, 아람관 교직원 식당 앞

※ 연락망 구축 건

- 현재 나사렛 순장님들 연락 및 참여여부 조사는 다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참여인원 미지수, 또한 명단에 누락된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데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음. 따라서 지속적인 연락이 필요하며, 나사렛 순장님들 중 세대별로 핵심 순장님들께 연락을 드려 각 세대의 순장님들께 거미줄처럼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한다. 이 연락은 11월 동안 지속한다. 또한 각 총단 순장의 달란트와 배경에 따라 접근 전략을 달리한다.
- 오해영 : 초기 순장님들(90-93학번 대) 연락을 드려 2명의 후배 나사렛 순장을 추천 받는다.(남/녀) 그 두 분을 통하여 쪽 내려오면서 세대별로 그룹을 형성해 동기 부여한다.
- 서명원 : 04학번부터 현재까지 거의 모든 순장님들을 알고 있으므로 한 명 한 명 개별적 연락을 취한다.

+95학번 조경아 나사렛 / 03학번 박지윤 순장님 / (이규원 순장님 홈커밍데이 오셨던)

- 김효진 : 위의 두 순장이 하는 방식이 캠퍼스가 편중될 우려가 있으므로, 동서울대, 동원대, 폴리텍, 서울장신대 핵심 순장들에게 연락한다.
- 노운영 :

* 5-6시 예배

- ① 경배와 찬양(축복 포함) : 마하나임 - 15분
- ② 나사렛 순장님 간증 (가능하다면) - 7분
- ③ 렛잇비 패러디 (평생순장) - 5분
섭외 물망에 오른 사람(미정) : 아현/수인/지환/지현/하영... 건반은 효진? - 11월 22일까지 정하기
- ④ 영상 상영 (10분 이내)

- 아이디어 1. 박성민 목사님 축하메시지 <이건 어떻게??>
- 아이디어 2. 옛날 2002년 미디어순이 만들었던 영상작품 중 선정하여 상영
- 아이디어 3. 성남지부 자체제작 영상

⑤ 메시지(15분) - 상의 필요

- 김수봉 간사님 or 간사님께 상의(김수봉 간사님의 선배 간사님 또는 이전 성남지구 책임 간사님)

⑥ CCC 비전캐스팅(10분) - 상의 필요

- 김수봉 간사님 or 학생 리더십이 하는 방안

⑦ 구호 및 찬양 (6분)

- 함께 구호 후 찬양(그리스도의 계절)
- 헌금 바구니

⑧ 김수봉 간사님 마무리 기도.(2분)

2. 12월 지부채플 - 졸업생 파송 채플

* 방향성 제시

- 졸업생 : 캠퍼스 생활이 정말로 의미가 있었던 시간임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, 그리고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.
- 재학생 : 졸업생들과 헤어지는 아쉬움, 평생순장의 삶에 대한 사모함을 가진다. 나사렛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.
- 의견 : 송사/답사 등의 순서가 필요한 것은 인정하지만 형식적이고 딱딱하며, 실제로 순원, 순장들에게 크게 와닿지 않는다. 어떻게 하면 그들의 마음과 이야기가 잘 전달될 수 있을까.
- 대표기도자 : 박예은 (9월달에 예정)
- 졸업생 명단 : 황미라, 임성규, 김승연, 송희, 이지연(물어보자), 최현우, 김기림(못옴), 최현하(불참), 김성균(못옴),
- 70명의 인원이 원탁에 둘러 앉아 졸업생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만큼의 숫자가 아니다.
- 새로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.

송사 : 김효진 순장(미정)

답사 : 황미라 순장

메시지 : 김수봉 간사님

파송식 :

기도회 :

선물 증정 : 총단이 기본적으로 하나씩 준비하자.

롤링페이퍼에 대한 의견 : 실제로 모르는 인원들에게 진심어린 롤링페이퍼를 쓰기는 어렵다. 다른 순서를 만들자.

특송 : 졸업생들 - 미리 전달 후 준비시켜야 한다.

행정절차 : 선한목자 교회 세미나실 대여 확인(공문처리) / 음향장비 대여 협조 확인

키보드 1대, 빔프로젝터 2개, 마이크 4개, 어쿠스틱 기타 채널 1개

3. 금식수련회 동원

금식체인표 만들기 / 서울지구 기도체인 : 서명원 순장

기도노트 90-100부 : 제작(11월 23일까지)

체크리스트 만들기 : 김효진 순장

다른 지부 금식수련회 동기부여 영상 탐색 : 현재 우리 영상 제작 여건이 되지 않음.

- 금식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, 집중하여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.
- 사모함을 가질 수 있도록, 금식에 대한 교육 및 자료 필요. -> 기도노트
- 준비하는데 있어 '전통'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관습적인 것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새롭게 동기 부여하자.

4. 12월 만나교회 총동원 채플(금식)

- 12월 18일은 현실적으로 힘이 든다. : 한창 시험기간 중.
- 차선책 : 12월 19일(금) - 그러나 금요일야 등의 변수
- 12월 23일(화) : 원래 캠퍼스 모임이 있는 날, 대부분이 종강이라 프리함. 그러나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아 교회에서 준비할 것이 많다.
- 12월 26일(금) : 모든 행사가 끝난 뒤라 여유로울 수 있으나, 수련회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아 부담스러울 수 있음.